



---

ICT GLOBAL MARKET ANALYSIS

# 국가별 ICT 시장동향

호주

# 국가별 ICT 시장동향

## CONTENTS

<b>I ICT 국가 산업 현황</b> .....	<b>3</b>
(*) SUMMARY	
1. 국가 개황	
2. ICT 정부 기관	
3. ICT 주요 정책	
4. ICT 주요 법령 및 규제	
5. ICT 주요 기업	
6. 한국 협력 및 국내기업 진출 사례	
<b>II ICT 주요 동향</b> .....	<b>18</b>
(*) SUMMARY	
1. 기업용 SW	
2. 핀테크	
3. 인공지능	
4. 사이버보안	
5. 헬스테크	
<b>III 스타트업 생태계</b> .....	<b>25</b>
(*) SUMMARY	
1. 캔바(Canva)	
2. 에어월렉스(Airwallex)	
3. 큐시티알엘(Q-CTRL)	
4. NRN(National Renewable Network)	
5. 이뮤터블(Immutable)	

※ 참고 문헌



# I ICT 국가 산업 현황 ..... 03

## (\*) SUMMARY

1. 국가 개황
2. ICT 정부 기관
3. ICT 주요 정책
4. ICT 주요 법령 및 규제
5. ICT 주요 기업
6. 한국 협력 및 국내기업 진출 사례

본 보고서는 최근 1년간 발표된 정책 및 법령을 우선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내 관련 정책이 없을 경우 이전 보고서와 중복되지 않는 정책을 선별하였으며, 모든 정책과 법령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정부 기구 관련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상세 정보는 각 국가의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UMMARY

그림 | 호주 ICT 관련 정부 동향



# 1. 국가 개황

-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광물자원 등 교역으로 대외경제 안정적
  -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2023년 9월 4.1%) 및 높은 물가로 인해 가계소비, 2024년 GDP 성장률은 1.25%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예상
  -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으로 부동산 투자 등이 위축되며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의 성장률
  - 아세안은 호주의 제2위 교역 상대로, 호주 정부는 '2040년 동남아 경제 전략'을 통해 해당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모색. 철광석, 석탄, LNG 등 광물자원 수출을 기반으로 한 상품 수출 경쟁력이 여전히 견조하며,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
- 글로벌 혁신지수 22위, 인적 자본 및 연구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
  - 호주는 22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하며 비교적 상위권을 유지. 혁신 투입 순위는 18위로 높은 반면, 혁신 성과 순위는 30위로 낮아 혁신 효율성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
  - 제도(1위), 인적자본·연구(2위), 기업 성숙도(3위)에서 최고 수준 경쟁력. 정부 효율성, 규제 품질, 벤처캐피탈 투자 등 지표 1위로 혁신 기반 강점

표 | 호주 ICT 국가 개황

출처 : CIA World Factbook, IMF,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구분	기준년도	대한민국	호주
일반 개황	인구	2025	5,208만 명	2,680만 명
	면적(km <sup>2</sup> )	2025	99,720	7,700,000
	언어	2025	한국어	영어
	종교	2025	무교, 개신교, 불교 등	기독교, 무교, 불교, 이슬람교 등
	정부형태 / 의회제도	2025	의원내각제/양원제	의원내각제 / 단원제
경제 개황	GDP	2025	1.79조 달러	17,740억 달러
	경제 성장률	2025(F)	1.00%	2.10%
	S&P 신용등급	2024	AA	AAA
ICT 현황	모바일 셀룰러 가입자 수	2024	162.1명(100명 당)	113명(100명 당)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2024	121.7명(100명 당)	128명(100명 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2024	46.6명(100명 당)	36.5명(100명 당)
	인터넷 사용자 비중	2023	97.40%	97.1%
글로벌 혁신 지수	총점(순위)	2024	60.9(6)	22위
	인적자원 및 연구	2024	67(1)	58.6(8)
	제도	2024	72.5(20)	56.7(11)
	시장고도화	2024	61.9(4)	55.4(17)
	인프라	2024	63.6(7)	55.7(25)

## 2. ICT 정부 기관

① 산업 과학에너지자원부

표 |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DISR)  
출처 :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구분	내용
기관명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 DISR)
설립 연도	2022년
주요 산하 기관	호주 핵 과학기술 기구(ANSTO), 영연방 과학 및 산업 연구 기구(CSIRO), 국립해상 석유 안전 및 환경 관리기관(NOPSEMA), 국가채건 기금 공사(NRFC), 탄소제로경제청
홈페이지	<a href="https://www.industry.gov.au/">https://www.industry.gov.au/</a>

주요 인사



- 메건 퀸 PSM (Meghan Quinn PSM)
-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장관
- 2024년 취임

조직도



- 호주 전체 디지털 전략 총괄 및 ICT 산업 자체의 진흥 및 혁신 지원 역할
  - 호주의 산업 경쟁력, 과학, 자원, 에너지 및 탄소 배출량 감소(Emissions Reduction) 분야의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집행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
  - 산업, 과학 및 혁신 관련 그룹 내에서 기술 상용화, 연구 개발(R&D) 지원, 핵심 기술(Critical Technologies) 및 양자 기술(Quantum)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서들이 ICT 혁신을 지원
- 2025년 ICT 조달 및 산업유인과 인공지능·자동화·거버넌스 강화 추진
  - 2025-29년을 위한 'Corporate Plan 2025-29'을 통해 '생산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
  - 산업·자원 정책과 연계해 '데이터·디지털 역량 개선', '공급망 회복력 확보', '혁신형 기업 및 ICT 스타트업 지원' 등이 언급
  - 2025년 3월, 정부가 ICT 부문 조달 시 '호주 내수에 대한 혜택(economic benefit)'을 고려하도록 된 가이드 발표


## 2. ICT 정부 기관

② 사회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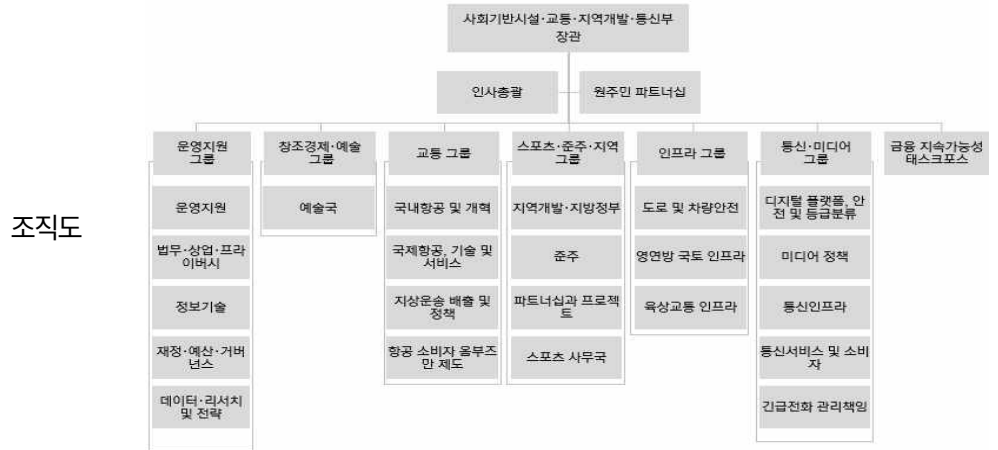
표 | 사회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통신부 (DITRDSA)  
출처 : 사회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통신부(DITRDSA)

구분	내용
기관명	사회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통신부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the Arts, DITRDSA)
설립 연도	2022년 (재편)
주요 산하 기관	호주 방송공사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엔비엔 주식회사 (NBN Co. Ltd),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 (Screen Australia) 호주 국립 미술관(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호주 국립 박물관(National Museum of Australia), 호주 국립 기록원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민간항공안전청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국가교통위원회 (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등
홈페이지	<a href="https://www.infrastructure.gov.au/">https://www.infrastructure.gov.au/</a>

주요 인사



- 짐 베츠 (Jim Betts)
- 사회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통신부 장관
- 2022년 7월 취임



### ■ 국가 산업 전략과 ICT 융합 신산업 성장 주도

- ICT 인프라 및 규제 총괄 역할부터 통신 인프라, 미디어, 광대역 네트워크, 우편 서비스,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시행하여 호주 사회의 연결성과 문화적 역량을 증진하는 기관
- 통신 및 예술 그룹 내의 부서들이 NBN 정책, 5G 및 미래 네트워크, 통신 서비스 접근성, 미디어 규제 등을 담당

### ■ 2025년 데이터·기술·사람·프로세스 기반 역량강화 데이터 전략 수립

- 모바일 커버리지 확대, 네트워크 회복력(resilience) 확보, 소비자 중심의 규제 체계(consumer-focused regulatory regime) 구축 등을 우선 순위화
- Data Strategy 2025-29에서, 데이터·기술·사람·프로세스 4개 핵심 테마에 걸쳐 부처의 데이터·디지털 역량을 강화 계획 수립. 정책·프로그램 설계 및 규제까지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화 추진

## 2. ICT 정부 기관

### ③ 호주 디지털 혁신청

표 | 호주 디지털 혁신청 (DTA)

출처 : 호주 디지털 혁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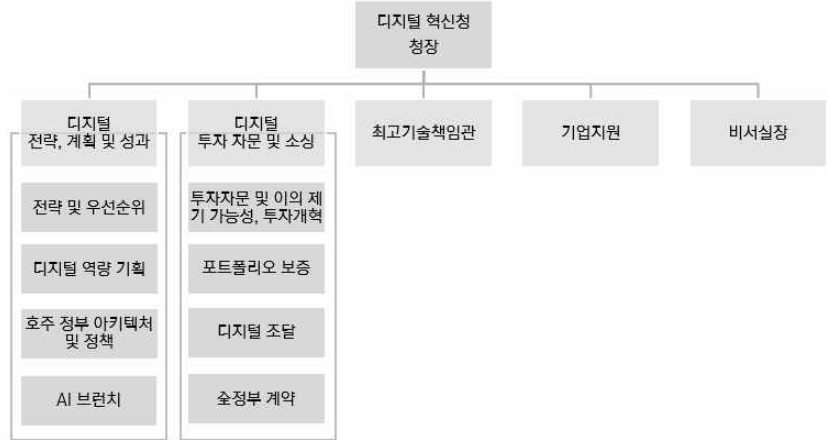
구분	내용
기관명	디지털 혁신청 (Digital Transformation Agency, DTA)
설립 연도	2015년
홈페이지	<a href="https://www.dta.gov.au/">https://www.dta.gov.au/</a>

주요 인사



- 크리스 페크너 (Chris Fechner)
- 디지털 혁신청 최고경영자, 최고디지털책임자
- 2021년 10월 취임

조직도



### ■ 국가 ICT 예산 편성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 총괄

- 호주 연방 정부 기관의 디지털 서비스 및 플랫폼 혁신을 주도하는 기관. 시민들이 정부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디지털 서비스의 표준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발
- 최고디지털책임자를 중심으로, 디지털 정부 전략, 서비스 디자인 및 개발, 데이터 관리, 사이버 보안 및 기술 표준화를 담당하는 여러 부서로 구성됨. DTA는 독립적인 정부 기관이지만, 재무장관산하에 보고

### ■ 2025년 디지털 ID와 서비스 표준 등 디지털 전환 주도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Digital ID) 시스템 구축 및 중앙 정부 서비스 포털인 MyGov의 기능 및 사용자 경험 개선
- 모든 정부 기관의 디지털 서비스가 높은 접근성, 보안 및 사용자 중심 디자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디지털 표준(Digital Standards) 적용 확대
- 정부 전반의 IT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공통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가속화

## 2. ICT 정부 기관

④ 호주 사이버 및 인프라 보안센터

표 | 호주 사이버 및 인프라 보안센터(CISC)  
출처 : 호주내무부

구분	내용
기관명	호주 사이버 및 인프라 보안센터 (Cyber and Infrastructure Security Centre, CISC)
설립 연도	2021년
주요 산하 기관	-
홈페이지	<a href="https://www.cisc.gov.au/">https://www.cisc.gov.au/</a>

주요 인사



- 하미시 핸스포드 (Hamish Hansford)
- 내무부 차관
- CISC 직무대행 센터장
- 2023년 2월 취임

### ■ SOCIA의 핵심 규정을 이행하며 국가 안보 수립

-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산하에서 중요 기반시설 보안법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 SOCIA)에 따라 주요 인프라 자산의 소유자 및 운영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관리하고 시행
- 국가안보·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물리적 위협에 대한 관문 역할
- 통신, 에너지, 수자원, 의료, 금융 시장 등 11개 주요 산업부문에 걸쳐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위협과 사이버 위협 모두를 포괄
- 리스크 기반 규제·보호체계 운영.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정부지원수단 (Government Assistance Measures)을 동원한 정부 개입 실행

### ■ 2025년 SOCIA의 완전한 시행 및 규제 환경의 정착에 중점

- 국방·ASD·ACSC와 통합안보모델(Joint Security Model) 가동. CISC의 규제·정책, ACSC의 기술·사이버 대응, ASD의 국가 수준 위협 분석 등 3자 통합 모델(all-hazards + all-agencies model) 구축
- 법의 적용을 받는 중요 엔티티(Critical Entities)와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디지털 경제 부문의 새로운 중요 인프라를 포함
- 호주 사이버보안센터(ACSC)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요 인프라 부문의 사이버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운영자들의 위협 인텔리전스 접근성을 확대
- 단순한 방어를 넘어, 인프라 운영자가 공격이나 자연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서비스를 회복할 수 있도록 탄력성 (Resilience) 구축을 최우선 목표

## 2. ICT 정부 기관

### ⑤ 호주 신호국

#### 표 | 호주 신호국 (ASD)

출처 : 호주 신호국

구분	내용
기관명	호주 신호국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 ASD)
설립 연도	2013년 (국방신호국(DSB)으로 출범)
주요 산하 기관	호주 사이버보안센터(ACSC)
홈페이지	www.asd.gov.au

#### 주요 인사



- 아비게일 브래드쇼 (Abigail Bradshaw)
- 호주 신호국 국장
- 2020년 2월

#### ■ 호주 정부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방어

- 1947년 11월 12일 국방 신호국(Defence Signals Bureau, DSB)으로 출범. 2001년에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재편되었으며, 2013년에 현재의 명칭인 호주 신호국(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으로 변경
- ASD의 임무는 외국 신호 정보 수집, 사이버전, 정보 보안 제공을 통해 호주를 글로벌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국익 증진
-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을 포함하여 해외 신호 정보를 수집, 호주 정부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고, 정보 보안을 책임. 사이버 작전 능력(Offensive Cyber Capabilities)을 통해 국가의 군사 및 정보 패권에 기여

#### ■ 2025년 위협환경 고조와 데이터 침해 심각성에 따른 비용 증가 예방

- ASD 이사회는 2025-26년 고객에게 제공되는 기술이 안전을 염두한 설계 단계(Secure by Design), 안전한 기본 설정 (Secure by Default), 현대적인 방어 가능한 아키텍처(Modern Defensible Architectures) 구축에 집중
- 2025-26년 이벤트 로깅 및 위협탐지, 레거시 IT 관리, 사이버 공급망 위험 관리, 포스트-퀀텀암호화 전환 계획 방향 제시
- 엄격한 접근을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공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제품 및 서비스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보안 공급 보장, 양자 내성 알고리즘으로 마이그레이션 로드맵을 포함한 전환 계획 수립

### 3. ICT 주요 정책

① 호주 공공 서비스를 위한 AI 계획 개요 (Australian Public Service AI plan 2025, APS AI Plan)

- 2025년 APS 내 안전하고 책임있는 GovAI 활용 확대
  - 2025년 11월, 연방정부 공공서비스(APS) 내 인공지능 활용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확대하는 '호주 공공 서비스를 위한 AI 계획' 발표
  - 서비스 제공개선, 정책 성과 향상, 업무 생산성 증대 도모
  - 모든 공무원이 생성형 AI 도구에 접근하고 활용하고 인간의 통찰력, 공감, 판단이 필요한 일에 공무원이 집중할 수 있게 지원
  - 부처 간 중복 투자를 방지를 위한 공통 서비스 구축, 데이터 인프라 현대화 및 AI 윤리 프레임 워크(AI Ethics Principles) 적용 의무화
- 정부의 윤리적 기준과 투명성이 확립된 AI 활용을 통해 미래 역량 확보
  - 공공 서비스 제공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난이 예상되어 AI를 통한 업무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
  -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AI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복 투자, 기술 격차, 윤리적 기준 불일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을 확보
  - AI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법적, 윤리적, 기술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 차별없는 AI 혜택과 기술 발전에 따른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시장 확대 전망
  - 국민들의 민원 처리, 정보 접근, 복지 서비스 신청 등이 자동화되고 연중무휴(24/7)로 제공되어 편의성이 극대화
  - 정책 입안 및 평가 과정의 정밀도가 향상되어, 국민의 요구에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
  - AI 기반 솔루션 및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공공 조달 수요 증가와 책임있는 AI 기술 시장의 성장,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 수요 증가 기대

표 | 호주 공공 서비스를 위한 AI 계획 개요

출처 : 호주 공공서비스 위원회, 상원의원

항목	세부내용
주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li> <li>• 디지털 전환청(Digital Transformation Agency, DTA)</li> <li>• 호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li> </ul>
시행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11월 발표 및 시행 시작</li> </ul>
주요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서비스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활용을 위한 경로 제시</li> <li>•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호주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li> <li>• 공공 서비스 전반의 광범위한 입력 및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li> </ul>
3대 핵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활용 3대 축(pillars)으로 구성</li> <li>• 신뢰(Trust): 국민 및 공무원 내부의 신뢰 확보</li> <li>• 사람(People):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조직 문화 변화 대응</li> <li>• 도구(Tool): 안전하고 일관된 AI 기반 인프라·도구 제공</li> </ul>
기대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li> <li>• AI 기술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발전을 도모</li> <li>• 국민 중심의 정부 서비스를 실현</li> </ul>

### 3. ICT 주요 정책

② 디지털 경험 정책  
(Digital Experience Policy)

- 호주 정부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 중심, 일관성, 접근성의 3대 원칙을 준수
  - 호주 디지털 전환청(DTA)은 연방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들이 정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일관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의무화
  - '하나의 정부(One Government)'로서의 통합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개별 부처 간 서비스 품질 차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
  - 5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하며, '국민 중심의 설계'를 최우선으로 요구.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기적인 사용성 사전 테스트 의무
- 온라인 서비스 증대로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 일관성 확보 필요성
  - 정부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이 일관된 품질의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 증대
  - 부처마다 다른 UI·절차·표준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정부 신뢰도와 이용 효율성을 저하
  - Digital Experience Policy는 이러한 편차를 줄여 모든 국민이 쉽고 동일한 경험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
- 국민이 정부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신뢰도 제고에 기여
  - 표준화된 디지털 경험 정책은 공공서비스 품질 편차를 줄여, 전 부처에서 동일한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
  - 기관 간 데이터·기능 연계를 통해 절차적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제공 속도와 사용자 효율성을 극대화
  -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공공서비스가 단순 온라인화가 아닌 국민 중심·효율 중심의 통합 디지털 정부 모델로 진화하도록 유도

표 | 디지털 경험 정책  
출처 : 디지털전환청

항목	세부내용
주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li> <li>• 디지털 전환청(DTA)</li> </ul>
정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연방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자 경험을 통일</li> <li>• 호주 연방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표준과 요구사항을 규정</li> </ul>
핵심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중심(User-Centred): 국민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li> <li>• 일관성(Consistent): 모든 정부 서비스의 통일된 경험과 품질</li> <li>• 포괄성(Inclusive):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li> </ul>
5가지 핵심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국민 중심 설계</li> <li>• ② 일관된 외관 및 느낌 : GovCMS 표준 준수</li> <li>• ③ 디지털 접근성 : WCAG 2.1 AA 레벨 이상 준수 의무</li> <li>• ④ 사용 용이성 : 직관적인 정보 아키텍처, 언어 및 탐색구조</li> <li>• ⑤ 고성능 및 보안 : 보안 표준 및 로드시간 등 성능지표 준수</li> </ul>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효율 : 일관된 표준 준수를 통해 행정의 중복 투자를 방지</li> <li>• 포괄적 서비스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정부 서비스에 접근</li> <li>• 국민 신뢰: 일관된 서비스로 정부 신뢰도를 향상</li> </ul>

### 3. ICT 주요 정책

③ 호주 디지털 투자 계획 정책(Digital Investment Plan Policy (DIP Policy))

- 일관되고 장기적인 호주 공공 서비스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 설계
  - 디지털 전환청(DTA)이 주도하는 디지털 투자 계획 정책(DIP)은 디지털 및 ICT 투자가 각 기관의 특정 요구 사항과 정부 전체의 디지털 우선순위 모두에 부합하도록 보장
  - 디지털 및 ICT 투자 감독 프레임워크(Investment Oversight Framework, IOF)의 적용을 받는 모든 비법인 연방 법인(Non-Corporate Commonwealth Entities, NCEs)은 2025년 7월 1일까지 DIP 수립 및 제시
  - 기관들은 승인된 DIP를 최소 연 1회 DTA에 제출해야 하며 예산 및 MYEFO 주기에 맞춰 연 2회 업데이트를 권장
  
- 데이터 분산 및 호환성 문제로 스마트 도시 서비스 개발·확산 제약 발생
  - 정부 전체 기관 간 계획 수립 방식의 표준화를 위한 일관된 디지털 계획(CNSistent Digital Planning) 필요
  - 기관의 디지털투자가 정부의 디지털 및 데이터 전략, 기관의 사업 전략과 정렬되도록 전략적 정렬(Strategic Alignment) 지원 필요
  -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통해 디지털투자 우선순위화 가능 더 나은 투자 의사결정(Better Investment Decisions) 필요
  - 기관별 투자 계획을 통합해 정부 전체 디지털투자 포트폴리오, 격차(gap) 및 기회를 파악할 수 있게 전체 정부 관점(Whole-of-Government View) 필요
  
- 통합 플랫폼 기반 민관 협력 혁신 촉진 및 ICT 서비스 생태계 확장
  - 정부 전체의 디지털 투자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기관 간의 중복 개발 및 중복 투자, 공공 자원의 낭비 사전 제거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 단기적인 프로젝트 중심에서 벗어나 10년 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투자를 계획하여, 지속 가능한 전략적인 디지털 자산 확보
  -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스템의 노후화, 기술 격차, 사이버 보안 취약점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여 대규모 ICT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 저감

표 | 호주 디지털 투자 계획 정책 개요  
출처 : 디지털 전환청

항목	세부내용
주관 기관	• 디지털 전환청(DTA)
시행 시기	• 2025년 7월 1일
핵심 목표	• 일관된 디지털 계획(CNSistent Digital Planning) • 전략적 정렬(Strategic Alignment) • 더 나은 투자 의사결정((Better Investment Decisions) • 전체 정부 관점 (Whole-of-Government View)
주요 전략	• 디지털 및 ICT 투자 감독 프레임워크의 하위 NCEs 대상 • 단기·중기·장기 디지털 목표, 이니셔티브 및 성과 제시 • 승인된 DIP는 연 1회 이상 DTA를 제출
기대 성과	• 명확한 책임 소재 • 정부 전체 목표와 연계 • 위험 및 격차 식별 • 단기적 관행 탈피

## 4. ICT 주요 법령 및 규제

① 핵심 인프라 보안 및 기타 법률 개정(강화된 대응 및 예방) 법 2024(The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Enhanced Response and Prevention) Act 2024 (ERP Act))

- 2025년 4월, 정부의 정부 위험관리 프로그램(CIRMP) 권한 강화 발효
  - 2025년 4월 4일, 핵심 인프라 위험관리 프로그램(CIRMP) 의무를 명확히 하는 일부 개정 규칙 및 통신 보안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TSRMP) 규칙 발효
  - 기존 통신 보안 의무를 「2018년 기반시설 보안법(SOCI Act)」에 통합하여, 주요 기반시설 전반에 걸친 통합적·전위험 접근법을 구축
  - 위험관리 프로그램(Risk Management Program)으로 사회·경제적 안정, 국가안보 또는 국방에 '심각한 결함(serious deficiency)'이 발견될 경우, 정부에 해당 기관에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통신 부문에 대한 규제 효율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통해 핵심 인프라 기반 확보
  -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를 사이버 위협, 물리적 위협, 자연 재해 등 광범위한 위험으로부터 총체적(All-hazards)으로 보호 목표
  - 특히, 통신 부문은 다른 모든 핵심 인프라의 운영 기반으로 보안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 법률 프레임워크를 통합하여 규제의 효율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확보
- 사이버 보안 산업 성장과 국가적 회복탄력성 향상 기대
  - 통신 사업자 및 핵심 인프라 기업은 TSRMP 및 CIRMP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기술적 통제(Technical Controls)를 이행
  - 사이버 보안 컨설팅, 솔루션, 관리형 보안 서비스(MSSP)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기반으로 호주 사이버 보안 산업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 전망
  - 통신 부문이 SOCI Act로 통신 사업자들은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능력을 의무적으로 강화. 핵심 인프라(에너지, 금융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간접적으로 보장하며 국가적 회복탄력성 향상

표 | 핵심 인프라 보안 및 기타 법률 개정(강화된 대응 및 예방)법 2024  
출처 : 호주내무부, 의회(Parliament of Australia)

항목	내용
제정일 및 개정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정:</b> 2024년 핵심 인프라 보안 및 기타 법률 개정(강화된 대응 및 예방) 법 2024(ERP Act)</li> <li>• <b>개정 및 시행:</b> 2025년 4월 4일 통신 보안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TSRMP) 규칙 발효</li> </ul>
주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li> <li>• 사이버 및 인프라 보안 센터(CISC)</li> </ul>
핵심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SOCI Act 하에 통신 부문의 보안 의무를 강화</li> <li>• 핵심 비즈니스 데이터(Business Critical Data) 보호 의무 확정</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CIRMP) 의무를 명확히 하는 일부 개정 규칙</li> <li>• 통신 보안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TSRMP) 규칙</li> </ul>
주요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통신 보안 (Telecommunications Security)</li> <li>• 2. 위험관리 프로그램 (Risk Management Program)</li> <li>• 3. 데이터 저장 시스템 (Data Storage Systems)</li> <li>• 4. 정보 보호 (Information Protection)</li> <li>• 5. 광범위한 사건 대응 (Broader Incident Response)</li> <li>• 6. 강화된 보고 의무 (Enhanced Reporting)</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보안 시장의 성장</li> <li>• 통신부문의 회복탄력성 강화</li> <li>• 규제 부담과 투쟁 증가</li> </ul>

## 4. ICT 주요 법령 및 규제

② 소비자용 스마트 디바이스 보안 표준(Cyber Security Standards for Smart Devices) Rules 2025)

- 2026년 4월 소비자용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보안 강화 시행
  - 2025년 3월 소비자용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제조 및 유통업체에 최소한의 사이버 보안 의무를 부과하여 대규모 사이버 위협을 방지하는 규정 발표
  - 출고 시 고유한 암호를 설정하거나, 소비자가 최초 사용 시 자체 암호를 설정하도록 의무화
  - 소비자가 보안 문제를 상시(24/7) 보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48시간 이내 대응을 개시
  - 제품의 보안 업데이트 지원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단종 후 최소 5년간 지원하도록 권고
- 취약한 소비자 디바이스의 보안을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
  - 2023년 기준으로 호주 내 스마트 가전 기기에 대한 네트워크 공격이 전년 대비 170% 이상 급증. 이 중 상당수의 공격이 제조업체가 제공한 취약한 기본 암호 사용
  - 해킹된 수많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봇넷으로 활용되어 다른 핵심 인프라를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소비자 디바이스의 보안을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소비자 디바이스의 보안 수준 상향 평준화 및 IoT 제품 개발 패러다임 변화
  - 제조업체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안(Security by Design)을 필수적으로 통합 의무. 단기적 R&D 비용을 증가 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보안을 제품의 핵심 경쟁력 인식 및 제품 품질 상향 평준화 기대
  - 표준 규격 외 저가, 저품질의 보안 취약 제품은 호주 시장 진입이 불가 혹은 퇴출. 호주 ICT 시장 내 공급망 보안 수준을 강화,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 예상

표 | 소비자용 스마트 디바이스 보안 표준(Cyber Security Standards for Smart Devices) Rules 2025) 주요 내용  
출처 : 호주내무부, 의회(Parliament of Australia)

항목	내용
제정 및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 핵심 인프라 보안 및 기타 법률 개정(강화된 대응 및 예방) 법 2024 (ERP Act) 제정</li> <li>• 발표 : 2025년 3월 5일 소비자용 스마트 디바이스 보안표준 발표</li> <li>• 시행 : 2026년 3월 시행 예정</li> </ul>
주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li> <li>• 사이버 및 인프라 보안 센터(CISC)</li> </ul>
핵심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관련 연결 가능 제품'의 보안을 강화하는 의무를 부과</li> <li>• 소비자용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제조 및 유통업체에 최소한의 사이버 보안 의무를 부과하여 대규모 사이버 위협을 방지하는 규정</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암호 사용 금지</li> <li>• 취약점 보고 체계 구축</li> <li>• 보안 업데이트 지원기간 명시</li> </ul>
시행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규제 준수를 위해 적합성 선언서를 제출</li> <li>• 규제 당국: 정기적인 무작위 샘플 검사를 시행하여 위반 시 제재</li> </ul>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개발 패러다임 변화</li> <li>• 보안 관련 서비스 시장 확대</li> <li>• 공급망 및 시장 정화 효과</li> </ul>

## 5. ICT 주요 기업

- 호주의 ICT 시장은 견고한 성장이 예측되며, 소프트웨어 분야가 성장을 주도
  - Atlassian가 시가총액 약 409억 달러로 1위를 기록하며 Rovo AI와 같은 AI 에이전트를 공격적으로 통합하며 업무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
  - 2위 Telstra Group은 약 193억 달러 시가총액으로 에릭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5G 네트워크 성능을 혁신하여 B2B 기업 솔루션 및 초고속 연결 시장을 선도
  - 최근 데이터 침해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부와 기업 모두 사이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솔루션 도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
- 클라우드 및 SaaS로 전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
  - 기업들이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기반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아틀라시안(Atlassian)이나 제로(Xero)와 같은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 가속화
  - 헬스테크, 농업, 금융 등 전 산업에 걸쳐 AI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CIO들은 데이터 및 분석 분야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
  - 시드니, 멜버른을 중심으로 AI, 바이오, 핀테크, 프롭테크(PropTech) 스타트업 생태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

표 | 호주 ICT 기업의  
2025년 시가총액 규모  
순위

출처 : 각 기업 연간 보고서 및  
시장 추정치 종합

순위	기업명	시가총액 (USD)	사업 분야
①	Atlassian ( <a href="https://www.atlassian.com/">https://www.atlassian.com/</a> )	40.91B	프트웨어 개발 및 협업 툴
②	Telstra Group ( <a href="https://www.telstra.com.au/">https://www.telstra.com.au/</a> )	19.32B	통신, 모바일 및 유선 네트워크 서비스, ICT 인프라 및 기술 솔루션
③	WiseTech Globa ( <a href="https://www.wisetechglobal.com/">https://www.wisetechglobal.com/</a> )	24.82B	글로벌 물류 및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CargoWise)
④	Xero ( <a href="https://www.xero.com/">https://www.xero.com/</a> )	13.80B	클라우드 기반 중소기업용 회계 및 재무 관리 프트웨어(SaaS)
⑤	REA Group ( <a href="https://www.rea-group.com/">https://www.rea-group.com/</a> )	11.59B	디지털 부동산 광고 및 서비스 (Prop Tech)
⑥	Pro Medicus ( <a href="https://www.promed.com.au/">https://www.promed.com.au/</a> )	11.55B	의료 영상 정보 솔루션 (HealthTech)
⑦	Iris Energy ( <a href="https://iren.com/">https://iren.com/</a> )	10.34B	AI 및 HPC(고성능 컴퓨팅)용 데이터 센터 개발 및 운영,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
⑧	Computershare ( <a href="https://www.computershare.com/corporate">https://www.computershare.com/corporate</a> )	8.94B	금융 관리 서비스 기술, 주주 등록 대행, 기업 서비스 및 트랜스퍼 에이전시(Fin Tech)
⑨	Technology One ( <a href="https://www.technology1.com/">https://www.technology1.com/</a> )	7.45B	공공 부문 및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ERP, SaaS) 솔루션
⑩	NEXTDC ( <a href="https://www.nextdc.com/">https://www.nextdc.com/</a> )	6.10B	데이터 센터 코로케이션 서비스, 클라우드 및 상호 연결 인프라 제공

\*참고: 시가총액 기준일은 2024년 말(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상반기 최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산출함. 환율은 1 AUD=약 0.655USD 기준 적용됨. 시가총액은 공개된 증권시장 자료와 기업별 연간 보고서, 주요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종합하여 산출함

## 6. 한국 협력 및 국내기업 진출 사례

### ■ 한국-호주 FTA 체결 현황

- 2014년 12월 한-호주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은 연평균 5.7% 증가하며 상호보완적인 교역 구조
- 공산품 관세 철폐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기반 마련하며 안정적 시장 확보

### ■ 한국-호주 기관 협력 사례

- 2024년 4월, 한-호주 디지털 경제 협정 체결 추진으로 ICT 규범 확립. 양국 정부는 디지털 통상 및 전자 상거래 등 디지털 경제 전반의 포괄적 협정 체결을 논의하며, 데이터 이동성 보장 및 디지털 규범 조화를 위한 기반 구축
- 2024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호주, 양자·AI 등 첨단 ICT 공동 연구 협력 확대혁신 기술 교류전 개최. 양자 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 개발(R&D) 및 인력 교류를 위한 정부 간 협력 채널 정례화

### ■ 한국-호주 기업 협력 사례

- 2024년 5월, SK텔레콤은 AI 기반 동물 X-ray 분석 서비스 'X Caliber' 호주 공식 런칭. 2023년 ATX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후 베타 운영을 거쳐, ATX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연동해 호주 전역 100여 개 동물병원에서 즉시 사용 가능
- 2024년 12월, 이수화학, 퀸즐랜드주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인근에 위치한 러스컴 지역에 1ha 규모의 스마트팜 건설을 완료
- 2025년 2월, 코어라인소프트는 호주 1위 헬스케어 그룹인 파라곤케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호주 내 AI 의료 기술 확산 가속화 계획
- 2025년 10월, 토스는 호주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2025년 말까지 P2P 송금 등 핵심 서비스 출시를 발표

#### 표 | 한국-호주 협력 사례

출처 : 주요 글로벌 ICT 매체 발표 기사 취합

구분	날짜	내용
기관	2024.04	• 한-호주 디지털 경제 협정 체결 추진으로 ICT 규범 확립
	2024.05	• 한-호주 국방장관 공동 성명 ICT 등 핵심기술 협력 심화 명시
	2024.06	• 과기정통부 ICT 공동 연구협력 확대 혁신 기술 교류전 개최
	2024.11	• 농식품부 '2024 Korea-Australia Smart Farm Roadshow' 개최
	2025.10	• 부산대, 호주 정부의 청정에너지 국가사업협력기관으로 선정
기업	2024.05	• SKT- ATX X Caliber 공식 상용 출시 발표
	2024.11	• 한국 스마트팜 기업 GreenPlus,보호재배·스마트팜 협력·투자기회 논의
	2024.12	• 이수화학, 호주 퀸즐랜드에 1ha 규모 완전 자동화 스마트 온실 준공 및 가동 시작
	2025.02	• 코어라인소프트, 호주 1위 파라곤헬스케어 그룹과 협업
	2025.10	• 토스, 호주에 자회사 설립. 2025년 말까지 P2P 송금 등 핵심 서비스를 출시

(\*) SUMMARY

1. 기업용 SW
2. 핀테크
3. 인공지능
4. 사이버보안
5. 헬스테크

## SUMMARY

### ■ 2024년 벤처 투자 분야별 비중 분석 기반 선정

- 2024년 호주 ICT 벤처 투자 총 27.5억 호주달러 규모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기업 및 소비자 수요 증가가 투자 확대를 견인
- 상위 5개 분야가 전체 벤처 투자액의 2/3를 차지하며 핀테크·기업용 SW·헬스테크를 중심으로 투자 집중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임
- 투자 비중과 시장 성장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량 지표 기반 평가로 호주 ICT 시장의 5대 주력 분야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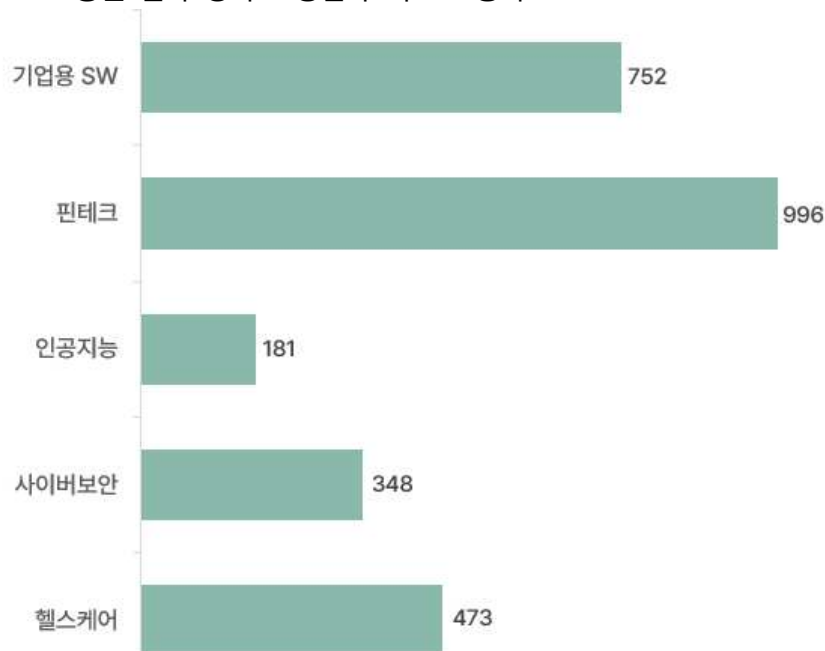
### ■ 핀테크·인공지능·헬스테크·기업용 소프트웨어·ESG 중심 ICT 산업 성장

- 핀테크는 9.96억 호주달러로 1위, 비은행 금융서비스 확대 및 결제·송금 디지털화가 시장 성장을 주도
- 기업용 SW가 7.52억 호주달러로 2위, 클라우드 기반 업무효율화 도구에 대한 기업 수요가 급증하며 투자 확대
- AI 분야는 1.81억 호주달러로 5대 분야중 가장 적으나, 타 산업 연계 AI 투자를 포함시킬 경우 18.6억 호주달러로 실질적 1위 규모

### ■ 규제 균형과 국제 협력 강화로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

- (기업용 SW)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 급증과 AI 기반 CRM 혁신으로 업무 환경 고도화,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구독모델 재편 진행
- (핀테크) 암호화폐 규제 강화와 선구매후불제 규제로 소비자 보호 확대, AML·KYC 중심의 금융 감독기조 강화 추세
- (인공지능) AI 신뢰성 문제 부각과 금융권 자동화 가속화, AI 데이터 규제 및 국제 표준 대응이 주요 과제로 부상
- (사이버보안) 국가 사이버 위협 환경 악화와 필수 인프라 공격 증가, 국가 차원의 보안 규제·컴플라이언스 요구 강화
- (헬스케어) AI 원격진료 안전성 논의와 의료정보 통합 인프라 구축, 임상·규제 승인 심사 강화로 상업화 리스크 증가

그림 | 호주 2024년  
분야별 투자 현황  
출처 : Techboard, Cut  
Through Venture, Folklore  
Ventures, TCA, BNA 등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1. 기업용 SW

표 | 호주 기업용 SW

분야 주요 이슈

(\*) 건수 : 유사 문서 발생 건수

(\*) 데이터 수집량 : 4,283건

호주 ICT 기사 약 689건

(\*) 데이터 수집 기간 :

2024.11 ~ 2025.10

순위	이슈	건수
1	호주 공중 클라우드 지출 2025년 A\$26.6bn 도달	108
2	호주 소프트웨어 산업, 6,000개 기업으로 경제 성장 주도	71
3	AI 기술이 호주 CRM 시스템 혁신 주도	59

## ■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 급증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 호주 기업들의 2025년 공중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이 약 27억 호주달러에 달할 전망, 전년 대비 18% 증가하는 지속적 성장세 기록
- 지난 5년간 클라우드 및 온디맨드 소프트웨어 이용이 3배 이상 증가, 비용 효율적이고 유연한 클라우드 솔루션 적극 도입 중
- 호주 통신사 Telstra가 인도 기업 Infosys와 함께 호주 클라우드 기업 Versent 인수하여 합작사 설립, AI-클라우드·사이버보안 역량 결합한 디지털 변혁 지원

## ■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으로 기술 생태계 확장

- 호주 내 6,000개 이상 소프트웨어 기업이 활동 중이며, 소프트웨어가 호주 기술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 Rose Rocket이 호주 최대 물류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CartonCloud와 전략 제휴로 호주·뉴질랜드 시장 공식 진출
- BAE Systems·남호주대학교 협력으로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첫 학위 수준 도제제 출범, 실무·대학 교육 결합해 인력 양성

## ■ AI 기술이 CRM 시스템 혁신 주도

- 호주 금융·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부상, 비즈니스 효율성 향상 견인
- AI 기반 CRM 솔루션이 업무 자동화와 고객 데이터 분석 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산업 변혁 주도
- 중소기업들이 예산 제약 속에서도 AI 기반 CRM 도입 확대, 고객 데이터 통합·업무 자동화·협업 개선 효과

\* SaaS(Software-as-a-Service): 소프트웨어-애즈-어-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고객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계를 관리하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

## 2. 핀테크

표 | 호주 핀테크 분야

주요 이슈

(\*) 건수 : 유사 문서 발생 건수

(\*) 데이터 수집량 : 4,283건

호주 ICT 기사 약 689건

(\*) 데이터 수집 기간 :

2024.11 ~ 2025.10

순위	이슈	건수
1	호주, 암호화폐 규제 강화로 금융기관 수준 감시 체계 도입	89
2	RegTech 산업 성장으로 규제 준수 솔루션 수요 증가	71
3	글로벌 네오뱅크 시장 2024년 1433억 달러 규모 달성	57

### ■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구축으로 시장 투명성 강화

- 호주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자산관리사를 전통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여 디지털 자산 시장 감시 강화
- 소비자 보호 확대와 시장 감시 체계 강화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관련 3년 로드맵을 공개했으나,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의 명확한 공익 사례는 아직 미확인

### ■ 선구매후불제 규제 본격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

- 호주 정부가 2024년 12월 10일 선구매후불제 규제법을 공식 승인하여 국가소비자신용보호법을 개정, BNPL 산업에 대한 규제 체계 본격 시행
- 애프터페이·클라르나 등 BNPL 서비스가 신용카드 등 다른 신용상품과 동일하게 규제되면서 신규 가입자의 이용 한도 제한 및 신용조회 의무 부과
- BNPL 규제 강화로 소비자 보호 수준이 전통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 무분별한 신용 확대 방지 및 금융 안정성 확보

### ■ 네오뱅크 부상으로 금융 서비스 디지털 전환 가속화

- 2024년 글로벌 네오뱅크 시장이 1433억 달러로 평가되며, 디지털 우선 금융기관으로서 신흥시장에서 기존 은행들과 강력한 경쟁 구도 형성
- 호주에서 모바일 지갑을 통한 결제가 2024년 40억 건을 넘어 1000억 달러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 디지털 금융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
- 최근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들이 호주의 디지털 투자 플랫폼·자산관리 서비스 기업들을 인수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는 추세

\*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

\* BNPL(Buy Now Pay Later): 선구매후불제, 상품 구매 시점에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분할 납부하는 금융 서비스

\* 네오뱅크(Neobank): 디지털 전용 은행, 오프라인 지점 없이 온라인·모바일로만 운영되는 은행

### 3. 인공지능

표 | 호주 인공지능 분야

주요 이슈

(\*) 건수 : 유사 문서 발생 건수

(\*) 데이터 수집량 : 4,283건

호주 ICT 기사 약 689건

(\*) 데이터 수집 기간 :

2024.11 ~ 2025.10

순위	이슈	건수
1	딜로이트, AI 오류 포함 44만 달러 보고서 호주 정부에 부분 환급	67
2	호주 최대 은행, AI 도입으로 수천 개 일자리 감소	45
3	AI 도입으로 호주 보험산업 운영 효율화 및 고객 서비스 개선	40

#### ■ AI 신뢰성 문제 부각으로 검증 체계 강화 필요성 대두

- 딜로이트가 호주 정부에 제출한 44만 달러 상당의 보고서에서 생성형 AI 사용으로 인한 허위 인용문과 존재하지 않는 학술 논문 참고 등 다수 오류 적발되어 부분 환급
- 호주 변호사들이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해 작성한 법정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 인용과 부정확한 내용 포함시켜 법원에 제출, 규제 당국에 적발
- 법관들이 AI 산출물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검증 없이 AI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경고, AI 신뢰성 문제 해결 위한 검증 체계 구축 시급

#### ■ 금융권 AI 자동화 가속화로 일자리 구조 변화

- 호주 최대 규모 은행인 커먼웰스은행이 OpenAI·Anthropic 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생성형 AI 챗봇과 고급 AI 솔루션 도입, 콜센터·고객 서비스 직원 수천 명 일자리 감소
- 호주 정부 일자리·기술청이 실시한 생성형 AI 역량 연구에서 데이터 입력·기록 관리·회계·통신 등 행정 직무가 AI 자동화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
- 대부분의 직업은 AI로 인해 완전 대체보다는 업무 방식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 AI 시대 적응 위한 리스킬링·업스킬링 등 직업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증대

#### ■ 보험업계 AI 활용 확대로 위험 평가 혁신

- 호주 국립과학청과 보험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이 보험사의 운영비용 관리·위험 평가 개선·맞춤형 고객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험산업 주요 과제 해결 가능 제시
- AI가 보험 청구 처리 자동화와 머신러닝 기반 사기 탐지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며, 보험사들의 운영 효율성 증대와 고객 만족도 개선에 실질적 효과 창출
- 호주 보험산업이 AI 도입을 통해 리스크 모델링의 정확도를 높이고 개인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을 가속화하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주도 추세

\* 리스킬링(Reskilling)·업스킬링(Upskilling): 리스킬링은 새로운 직무 수행을 위한 기술 재교육, 업스킬링은 현재 직무의 고급 기술 습득을 의미

\*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여 예측이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 리스크 모델링(Risk Modeling): 통계적 기법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정량화하는 보험업계 핵심 기술

## 4. 사이버보안

표 | 호주 사이버보안

분야 주요 이슈

(\*) 건수 : 유사 문서 발생 건수

(\*) 데이터 수집량 : 4,283건

호주 ICT 기사 약 689건

(\*) 데이터 수집 기간 :

2024.11 ~ 2025.10

순위	이슈	건수
1	호주, 2023-24년 사이버 위협 보고서 발표로 전략 환경 악화 확인	54
2	호주 정부, 러시아 카스퍼스키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45
3	호주 주요 인프라 사이버 공격 50% 증가로 보안 우려 고조	33

### ■ 호주, 국가 사이버 위협 환경 악화 확인으로 대응 체계 전면 강화

- 호주신호국이 2023-24년 연간 사이버 위협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가의 전략적 사이버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공식 지적
- 호주가 23-30 사이버보안 전략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사이버보안 분야 세계 최강국 달성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방어 역량 확충 추진
- 호주 의회가 사이버보안법 2024, 정보기관 개정법, 핵심 기반시설 보안 강화법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 방어력과 회복력을 대폭 강화

### ■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공급망 보안 강화 및 데이터 주권 확보

- 호주 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러시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의 소프트웨어를 정부 시스템에서 사용 금지하고 4월까지 기존 설치 SW 제거 지시
- 호주가 중국의 AI 챗봇 DeepSeek을 국가 보안 위협을 이유로 정부 시스템과 기기에서 제거하기로 결정, 개인정보 수집 및 국가안보 관련 우려 공식 제기
- 미국 클라우드법의 역외 적용으로 호주에 저장된 데이터도 미국 당국의 공개 요구 대상이 되면서 호주의 데이터 주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

### ■ 필수 인프라 사이버 공격 급증으로 방어 체계 재정비

- 호주신호국이 2021-22년과 2022-23년 사이 에너지·수도·의료·운송 등 필수 서비스 부문의 사이버 보안 사건이 50% 급증했다고 공식 보고
- 공격 건수가 2023-24년 121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공격의 복잡성과 정교함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안 우려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심화
- AI 기술을 악용한 정교한 사이버공격이 급증하고 내부 위협이 외부 공격을 넘어 최대 보안 위협으로 대두되며 제로트러스트 보안 문화 도입 논의 가속화

\* 카스퍼스키(Kaspersky): 러시아에 본사를 둔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및 보안 솔루션 제공 업체

\* 미국 클라우드법(US CLOUD Act): 미국 법 집행기관이 미국 기업이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해 저장 위치와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내부·외부 구분 없이 모든 접근을 신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사이버보안 접근 방식

## 5. 헬스케어

표 | 호주 헬스케어 분야

주요 이슈

(\*) 건수 : 유사 문서 발생 건수

(\*) 데이터 수집량 : 4,283건

호주 ICT 기사 약 689건

(\*) 데이터 수집 기간 :

2024.11 ~ 2025.10

순위	이슈	건수
1	호주, AI 원격진료 처방 안전 문제 제기로 규제 강화 필요	49
2	호주, 의료정보 통합 플랫폼 'Health Connect Australia' 전략 공개	35
3	호주 정부, 의료혁신 지원에 1억 달러 투자	21

### ■ AI 원격진료 급증으로 환자 안전 규제 논의 본격화

- 호주 보건당국이 의사와의 상담 없이 AI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원격진료 관행에 대해 550건의 신고를 접수하며 환자 안전 우려를 공식 표명
- 온라인 원격의료 플랫폼이 피임약·의료용 대마·체중감량약·의료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정부가 증가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강화하는 추세
- 또한, 국립보건의학연구위원회를 통해 연구 프로젝트에 500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여 원격의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활용 방안을 파악하는 작업 착수

### ■ 국가 의료정보 통합 인프라 구축으로 접근성 개선

- 호주 디지털보건청이 국가 의료정보 교환 프로젝트인 Health Connect Australia의 전략·아키텍처 및 로드맵을 발표하여 의료 참여자 간 의료정보 접근성을 대폭 개선
- 호주가 각 주별로 분산된 병원 의료기록을 통합하고 생체인증 보안 도입으로 데이터 유출을 50% 감소시키며 디지털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도를 제고
- 위원회 연구 보고서에서 의료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통합하면 환자 결과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연 50억 달러 이상 절감 가능성을 사례로 제시

### ■ 바이오의료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한 정부 투자 확대

- 호주 알바니즈 정부가 신형 바이오의료 및 의료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3개 기관에 약 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며 유망한 의료혁신 기업들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 호주 정부가 국가재건기금에서 15억 호주달러를 의료 제조업에 투자하여 제조 역량 강화와 연구 상용화를 추진하는 의료과학 공동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
- 의료 영상 분석 AI 솔루션을 개발한 호주 헬스테크 스타트업 Harrison.ai가 1억 1,2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여 암 등 중증질환의 조기 진단 기술 개발 가속화

\* Health Connect Australia: 호주 디지털보건청이 추진하는 국가 의료정보 교환 프로젝트로, 의료 참여자 간 정보 공유 체계 통합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

\* 생체인증(Biometric Authentication): 지문·얼굴·홍채 등 개인의 고유한 생체 특성을 활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보안 기술

### III 스타트업 생태계 ..... 25

(\*) SUMMARY

1. 캔바(Canva)
2. 에어윌렛엑스(Airwallex)
3. 큐시티알엘(Q-CTRL)
4. NRN(National Renewable Network)
5. 이뮤터블(Immutable)

## SUMMARY

### ■ 국가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비교를 위한 평가 방법론

- 전 세계 350개 생태계의 4백만 기업 데이터를 통한 Startup Genome의 국가별 스타트업 생태계 비교 분석
- 정책입안자와 엑셀러레이터 등 주요 자원 풀을 기준으로 생태계를 정의하고 생태계 가치와 펀딩을 주요 지표로 활용
- 생태계 퍼포먼스와 시장 도달성 등 핵심 요인별 가중치 기반 국가별 순위 산출

### ■ 시드니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25위 기록하며 높은 경쟁력 확보

- 성과(5점), 펀딩(3점), 인재(5점), 시장진출(5점), 지식(2점) 등 5개 지표 중 성과와 시장진출 부문이 강점
- 뉴사우스웨일스 정부는 「Industry Policy」 및 「Innovation Blueprint 2035」라는 10년 혁신 비전·정책을 제시. 전략·자금·공간·인재·참여 등 5개 실행 영역을 통해 혁신 잠재력을 실현
- 생태계 가치 성장률(CAGR)은 약 -17%로, 감소 추세지만 글로벌 평균 -14%보다 조금 더 큰 하락폭

### ■ 550억 달러 생태계 규모에 13억 달러 초기투자 유치, 혁신 허브 입지 강화

- 550억 달러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와 120억 달러 규모의 엑시트 실적 기록
- 핀테크, 사이버보안, 크리에이티브 & 게임, 양자 기술 분야 강점
- Atlassian, Canva, Immutable 등 시드니에 글로벌 본사를 둔 유니콘 존재
- 2024년 뉴사우스웨일스 주(NSW)에 걸쳐 3,000개 이상의 기술 스타트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해당 주에서 호주 전체 스타트업 펀딩의 약 65%를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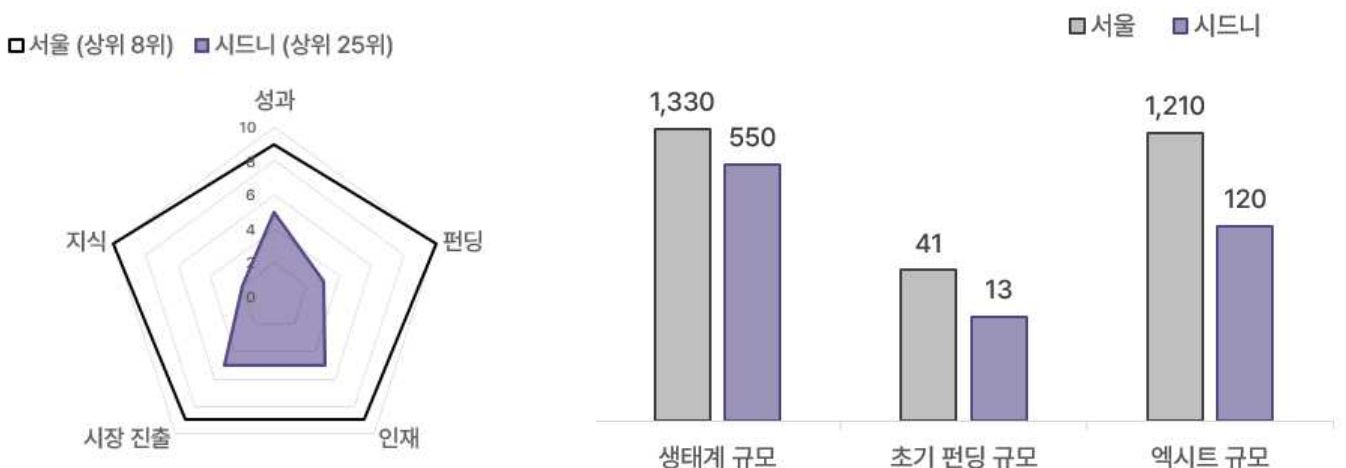


표 | 한국-시드니 스타트업 생태계 지표별 점수

기준연도 : 2025년  
 점수 기준 : 10점 만점  
 출처 : Startup Genome

표 | 한국-시드니 주요 스타트업 허브 비교

기준연도 : 2024년  
 단위 : 1억 달러  
 출처 : Startup Genome

# 1. 캔바(Canva)

표 | 캔바(Canva)

출처 : 캔바 공식 발표 자료

	구분	내용
기본 정보	ICT 분야	디자인 소프트웨어 (SaaS)
	본사 소재지	시드니
	홈페이지 주소	www.canva.com
투자 정보	최근 투자 라운드	시리즈 D (2025년 10월)
	최근 투자자	Franklin Templeton, T. Rowe Price, Dragoneer Investment Group
	총 투자 금액	약 5.72억 달러

- 비즈니스 개요
- (2007년) 모두를 위한 단순한 디자인 툴 아이디어 구상
  - (2008년) 전신인 Fushion Books 설립
  - (2012년) Canva 시드니 본사 설립
  - (2017년) 흑자전환 성공하여 비즈니스 모델 건전성 입증
  - (2018년) 4천만 호주달러를 유치하며 유니콘 지위 획득
  - (2025년) 시리즈D 5.6억 달러 확장투자 유치

■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그래픽 디자인 플랫폼

- 온라인 그래픽 디자인 플랫폼 제공. 사용이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도 소셜 미디어 콘텐츠, 프레젠테이션, 인쇄물 등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
- Freemium(프리미엄) 모델. 기본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며, 고급 기능(템플릿, 스톡 이미지, 협업 기능 등)에 대해 구독료(Canva Pro, Canva for Teams)를 부과하여 수익 창출
- 사용자 친화적 UI/UX 기술, 대규모 템플릿 및 애셋 관리 시스템, 실시간 협업 기능, AI 기반 디자인 추천 기술

■ 2025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를 목표

- 2021년 2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당시 약 400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받았으며, 주요 투자자로는 Sequoia Capital, Blackbird Ventures 등이 포함
- 호주에서 탄생한 가장 성공적인 유니콘(Unicorn) 기업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분야에서 호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상징
- 2025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를 목표로 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

■ 기업 및 팀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워크플로우를 통합하는 플랫폼으로 진화

- Magic Studio를 통해 AI 기반의 디자인 도구를 통합하여, 사용자가 더욱 빠르고 스마트하게 콘텐츠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
- B2B 시장 및 콘텐츠 관리/협업 솔루션으로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
- 전 세계적으로 현지 문화에 맞는 템플릿과 솔루션을 제공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 부문(Canva for Education)에도 중점

## 2. 에어월렉스(Airwallex)

표 |  
에어월렉스(Airwallex)  
출처 : 에어월렉스 공식 발표  
자료

	구분	내용
기본 정보	ICT 분야	핀테크 (글로벌 결제 인프라)
	본사 소재지	싱가포르 (멜버른 설립)
	홈페이지 주소	www.airwallex.com
투자 정보	최근 투자 라운드	시리즈 F (2025년 5월)
	최근 투자자	Visa Ventures, Square Peg, DST Global
	총 투자 금액	약 12억 달러

- 비즈니스  
개요
- (2015년) Airwallex 멜버른에 설립
  - (2017년) 첫 해 5백만 달러 결제 볼륨 달성
  - (2019년) 1억 달러 투자 유치. 유니콘 등극
  - (2021년) 시리즈 D 투자 유치로 기업 가치 55억 달러 달성
  - (2025년) 연간 매출액이 9억 달러, 연간 거래량 2,000억 달러 달성

### ■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금융 인프라 플랫폼 제공

-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금융 인프라 플랫폼 제공. 국경 간 결제, 자금 관리, 환전 등 복잡한 국제 거래를 단순화하는 서비스 제공
- 글로벌 결제 및 금융 서비스 플랫폼. 기업 고객에게 저렴하고 신속한 글로벌 송금, 다중 통화 계정, 결제 처리 등을 API 형태로 제공하고 수수료 기반으로 수익 창출
- 실시간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기술, 환율 변동 관리 및 최적화 기술, 국경 간 금융 규제 준수(Compliance) 자동화 기술

### ■ 미국 및 유럽 시장에서 4년간 연평균 영업이익의 성장률 250%를 기록

- 2021년 말 시리즈 D 라운드에서 1억 달러 규모를 투자를 시작으로 Tencent, Sequoia Capital, Visa 등이 주요 투자사 유치
- 2025년 5월, 시리즈 F에서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입증
- 호주를 대표하는 핀테크 유니콘 중 하나로, 특히 멜버른 생태계의 강점인 핀테크 분야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며 호주 기업의 국제화에 기여

### ■ 최첨단 기술과 고도화된 AI를 결합하여 글로벌 금융 운영 체제 구축

- 브라질에서 결제 기관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캐나다에서는 전년 대비 매출이 390% 급성장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
- 글로벌 금융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며, AI 기반 리스크 관리 및 자금 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1% 주식 기부를 통한 생태계 지원 선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병행

### 3. 큐시티알엘(Q-CTRL)

표 |  
 큐시티알엘(Q-CTRL)  
 출처 : 큐시티알엘 공식 발표 자료

	구분	내용
기본 정보	ICT 분야	양자 컴퓨팅/양자 센싱 인프라 소프트웨어 (Deep Tech)
	본사 소재지	시드니
	홈페이지 주소	<a href="https://q-ctrl.com/">https://q-ctrl.com/</a>
투자 정보	최근 투자 라운드	시리즈 B (2024년 10월 8일)
	최근 투자자	GP Bullhound (Lead), Alpha Edison, Lockheed Martin Ventures, NTT Finance, Salesforce Ventures
	총 투자 금액	약 1.66억 달러

- 비즈니스 개요
- (2017년) Q-CTRL 공식 설립. 시드니대 양자역학 첫 번째 스타트업
  - (2019년) 시리즈 A 라운드를 Square Peg Capital 주도로 유치
  - (2023년) 시리즈 B 확장 라운드 2,740만 달러 규모 유치
  - (2024년) 5,900만 달러 유치. 국방 관련 투자자가 참여
  - (2025년) IBM Qiskit 등 주요 양자 컴퓨팅 플랫폼에 통합

■ AI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양자 하드웨어의 오류 해결

- 양자 인프라 소프트웨어 개발사. 복잡하고 불안정한 양자 하드웨어의 오류와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AI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를 제공
- 양자 컴퓨팅 및 양자 센서의 성능을 극대화하여 기업이 기존 IT 개발자 기술을 활용해 양자 알고리즘을 쉽게 개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양자 시스템의 잡음(Noise)을 능동적으로 제거하여 하드웨어 성능 저하 없이 유용한 양자 솔루션의 구현 지원

■ 양자 산업 전반에 걸친 상용화에 필수적인 기술 보유

- 2024년 10월, 시리즈B 라운드를 확장하여 총 1.13억 달러 투자 유치. 이는 양자 소프트웨어 기업 중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로 기록
- GP Bullhound가 투자를 주도했으며, Salesforce Ventures, Airbus Ventures, Main Sequence Ventures 등이 참여.
- 투자자들은 Q-CTRL의 기술이 양자 산업 전반의 상용화에 필수적이며, 양자 컴퓨팅과 양자 센싱 두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 기대

■ 차세대 양자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 호주를 퀀텀 기술 강국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양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
- 유치된 자본을 바탕으로 양자 제어 R&D 및 제품 엔지니어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
- 국방, 정보기관, 포춘 500대 기업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양자 센싱 및 양자 컴퓨팅 시장에서 실용적인 솔루션 현장 배포 집중

## 4. NRN(National Renewable Network)

표 | NRN(National Renewable Network)  
출처 : NRN 공식 발표 자료

	구분	내용
기본 정보	ICT 분야	분산 에너지 인프라/클린테크 (EnergyTech, ICT 기반 VPP)
	본사 소재지	시드니
	홈페이지 주소	https://nrn.com.au/
투자 정보	최근 투자 라운드	시리즈 A
	최근 투자자	Investible (Lead), Virescent Ventures, Electrifi Ventures, Ecotone Partners' Planet Fund, Infradebt managed funds
	총 투자 금액	0.85억 호주달러 이상

- 비즈니스 개요
- (2019년) NRN 설립.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착수
  - (2021년) 초기 엔젤 투자를 유치하며 'No-upfront-cost' 모델 구축
  - (2022년) EnergyLab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참여
  - (2024년) Pre-Series A 라운드를 3배 이상 초과 청약 마무리
  - (2025년) Series A 라운드 6,720 호주 달러 유치 마감

### ■ 기후 기술 혁신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전력망 안정성 확보

-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연결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후 기술 스타트업. 주택 및 기업 고객이 초기 비용 없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에 기여
- 분산된 재생 에너지 자원(DER) 관리 기술, 가상 발전소(VPP) 운영 기술, 스마트 그리드 통합 솔루션. 가정 및 기업의 배터리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효율적 관리 최적화

### ■ 혁신성 인정받아 기후 테크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자 유치

- 2025년 8월, 호주 기후 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인 6700만 호주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
- EnergyLab 일원으로 호주 청정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대한 투자 커뮤니티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

### ■ 호주의 기후 변화 대응 청정 기술 투자 선도

- 초기 비용 장벽을 낮춰 재생 에너지의 대중화 및 분산화를 이끌며, 호주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 기술 투자 선도 증명
- 확보된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시스템의 전국적인 설치 및 네트워크 확장에 집중 예상
- 호주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가상 발전소(Virtual Power Plant)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

## 5. 이뮤터블(Immutable)

표 | 이뮤터블(Immutable)  
출처 : 이뮤터블 공식 발표 자료

	구분	내용
기본 정보	ICT 분야	WEB3/블록체인 게임 및 NFT 플랫폼
	본사 소재지	시드니
	홈페이지 주소	www.immutable.com
투자 정보	최근 투자 라운드	시리즈D (2022년 6월)
	최근 투자자	Temasek (테마섹), Tencent (텐센트), Naspers, Galaxy, Mirae Asset (미래에셋), Animoca Brands, GameStop, BITKRAFT Ventures 등
	총 투자 금액	약 8.57억 달러
비즈니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Fuel Games 설립.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게임 출시</li> <li>• (2019년) Immutable로 리브랜딩. 시리즈A 1.5천 호주달러 투자 유치</li> <li>• (2021년) Immutable X (IMX) 공식 출시, 시리즈 B 투자 유치</li> <li>• (2022년) 시리즈 C 2억 달러 투자 유치</li> <li>• (2023년) Polygo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li> <li>• (2024년) Immutable zkEVM Mainnet을 공식 출시. 글로벌생태계 확장 가속화</li> </ul>	

### ■ 게임 스튜디오 활동을 통해 블록체인 게이밍 생태계 구축

- Web3 게이밍 인프라 플랫폼 및 NFT 마켓플레이스로 게임 개발자가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 없이도 게임에 NFT 및 Web3 요소를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Layer-2 솔루션을 제공
- 이더리움 기반의 Layer-2 스케일링 프로토콜로, 'Zero Gas Fee' 및 'Instant Transaction'을 지원하여 NFT 거래의 확장성과 접근성 증대.
- Polygon기술과 협력하여 개발된 zk-Rollup 솔루션으로, 이더리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개발 편의성 제공

### ■ 시리즈 D 투자 유치로 디지털 자산 및 게임 산업의 기술·시장 선두 위치

- 2022년 시리즈 D 라운드까지 누적 약 8.57억 달러 이상 유치. 500억 달러 규모의 개발자 및 벤처 투자 펀드 조성 발표와 함께 진행
- Web3 게이밍이 수백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잠재력과 이더리움 기반 확장 가능한 수수료 없는(Gas-free) NFT 게이밍 환경을 제공하는 인프라로 높게 평가
-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유니콘 지위를 획득한 기업 중 하나이며, Web3 및 블록체인 인프라 분야에서 호주의 강력한 기술 리더십을 상징

### ■ 불확실한 수익 모델과 규제리스크 문제 잔존

- Immutable zkEVM을 중심으로 현재 400개에 가까운 Web3 게임 개발 진행 중. Web3 게이밍의 '골드 스탠다드' 인프라로 도약 도전
- NFT·블록체인 게임 산업이 여타 기술산업 대비 아직 수익모델이 불확실하고 규제 리스크가 존재

## ❖ 참고 문헌

### ■ 참고 자료

1. CIA, World Factbook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4.10.
3. ITU,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 Fixed-broadband subscriptions; Number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2023
4.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2024, 2024
5. Techboard, Australian Startup Funding in Review 2024
6. Startup Genome,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 2024"
7. Cut Through Venture, Australian Startup Funding Data 2024
8. Tech Council of Australia (TCA), AI Adoption & Private Funding Share
9. Folklore Ventures, Australian Startup Funding Landscape 2024

### ■ 참고 사이트

1. 캔바 홈페이지, <https://www.canva.com/>
2. 에어월렉스 홈페이지, <https://www.airwallex.com/>
3. 큐시티알엘 홈페이지, <https://q-ctrl.com/>
4. NRN 홈페이지, <https://nrn.com.au/>
5. 이뮤터블 홈페이지, <https://www.immutable.com/>



ICT GLOBAL MARKET ANALYSIS

## 국가별 ICT시장동향

- 발행 및 편집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발행일자 : 2025.11.24.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Copyright 2025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